

2019년 4월 17일

# KIWOOM DAILY

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| Strategist/Market 서상영 02) 3787-5241/ehdwl@kiwoom.com

## 미 증시, 업종별 차별화 속 상승폭 축소 금융주, 반도체 Vs. 헬스케어, 유틸리티, 리츠금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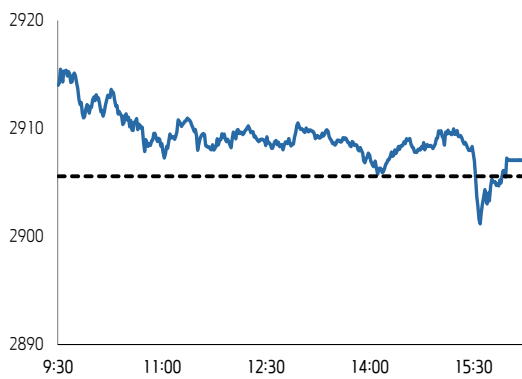
### 개별 종목 변동성 확대

미 증시는 양호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및 유럽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완화에 힘입어 상승 출발. 그러나 헬스케어 업종이 향후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진 이후 관련 업종이 하락 전환 하는 등 일부 업종의 실적 둔화에 대한 부담으로 상승분 반납(다우 +0.26%, 나스닥 +0.30%, S&P500 +0.05%, 러셀 2000 +0.23%)

4 월 독일 ZEW 경기기대지수는 전월(-3.6)이나 예상치(0.5)를 상회한 3.1 로 발표. 현재 경기 평가지수는 부진(11.1→5.5) 했으나, 경기 기대지수가 높아진 점은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감을 완화. 특히 6 개월 경기 선행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하반기 유로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. 한편, 미국의 3 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.1% 감소해 시장 예상치(mom +0.3%)를 하회. 특히 자동차(mom -2.3%)를 비롯 내구재 생산(mom -1.8%)이 이를 주도. 반면 반도체생산은 전월 대비 0.4% 증가했으며 첨단기술 및 자동차를 제외한 생산은 0.2% 증가. 이를 감안 미국은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이 부진했으나, 반도체, 에너지, 화학 업종은 견고해 관련 산업에 긍정적.

이런 가운데 유나이티드 헬스(-4.01%)은 견고한 실적과 전망을 상향 조정했으나, 컨퍼런스 콜에서 약품가격 논란과 'Medicare for All' 법률 발의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이후 급락. 시장 참여자들도 정치적인 이슈로 바이오 및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휴마나(-7.44%) 등 대부분 종목이 급락. 반면, BOA(+0.13%)는 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승. 특히 양호한 실적발표와 유로존 경제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미 국내금리가 상승하자 금융주 전반에 걸쳐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식시장 상승을 주도. 한편, 마이크론(+2.25%)을 비롯 넷플릭스(+3.04%) 등 일부 기업들은 애널리스트들의 긍정적인 보고서 발표 후 상승. 대체로 미 증시는 호·악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음

S&P500 일중 차트

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Global Indices

지수종류(%)	Close	D-1	지수종류(%)	Close	D-1
KOSPI	2,248.63	+0.26	홍콩恒生	30,129.87	+1.07
KOSDAQ	765.02	-0.23	영국	7,469.92	+0.44
DOW	26,452.66	+0.26	독일	12,101.32	+0.67
NASDAQ	8,000.23	+0.30	프랑스	5,528.67	+0.36
S&P 500	2,907.06	+0.05	스페인	9,497.30	+0.00
상하이종합	3,253.60	+2.39	그리스	775.78	+0.29
일본	22,221.66	+0.24	이탈리아	21,918.93	+0.12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##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

### 퀄컴, 애플과 특허 분쟁 종료 후 23% 넘게 급등

마이크론(+2.25%)은 노무라가 최근 기록적인 총 마진율을 기록하는 등 향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했다. 더불어 반도체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. 다만, 노무라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여전히 1,2월 매출이 둔화되는 등 부진함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라고 언급 했다. 한편 퀄컴(+23.21%)은 애플(+0.01%)과 특허권 논란을 해결 했고 합의안에서 애플이 퀄컴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아이폰에 대해 퀄컴 칩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자 급등 했다.

유나이티드 헬스(-4.01%)은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논쟁 등이 부각되며 급락 했다. 휴미나(-7.44%) 등 헬스케어 업종과 바이오젠(-1.57%), 암젠(-1.65%) 등 바이오 업종은 부진했다. BOA(+0.13%)은 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상승에 힘입어 상승 했다. JP모건(+1.06%), 웰스파고(+1.88%) 등도 동반 상승 했다. 넷플릭스(+3.04%)는 투자의견 상향 조정에 힘입어 상승 했으나,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시간외로 1% 하락 중이다. IBM(+0.86%)도 매출 둔화 발표 후 시간외로 2% 하락 중이다

#### 주요 ETF

ETF 종류	등락률	ETF 종류	등락률
원유시추업체 ETF(XOP)	+0.59%	대형 가치주 ETF(IVE)	+0.30%
에너지섹터 ETF(OIH)	+2.23%	중형 가치주 ETF(IWS)	-0.21%
소매업체 ETF(XRT)	+0.49%	소형 가치주 ETF(IWN)	+0.49%
금융섹터 ETF(XLF)	+1.41%	대형 성장주 ETF(VUG)	-0.10%
기술섹터 ETF(XLK)	+0.51%	중형 성장주 ETF(IWP)	-0.11%
소셜 미디어업체 ETF(SOCL)	+0.27%	소형 성장주 ETF(IWO)	+0.15%
인터넷업체 ETF(FDN)	+0.30%	배당주 ETF(DVY)	+0.33%
리츠업체 ETF(XLRE)	-2.36%	신흥국 고배당 ETF(DEM)	+0.92%
주택건설업체 ETF(XHB)	+0.49%	신흥국 저변동성 ETF(EEMV)	+0.22%
바이오섹터 ETF(IBB)	-1.00%	미국 국채 ETF(IEF)	-0.34%
헬스케어 ETF(XLV)	-2.05%	하이일드 ETF(JNK)	+0.03%
곡물 ETF(DBA)	-1.01%	물가연동채 ETF(TIP)	-0.23%
반도체 ETF(SMH)	+2.44%	Long/short ETF(BTAL)	-0.71%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#### US Sector Index

S&P 500	Close	D-1	D-5	D-20
에너지	499.94	+0.64%	+0.71%	+2.00%
소재	363.80	+0.47%	+1.23%	+4.73%
산업재	651.48	+0.59%	+2.23%	+3.88%
경기소비재	942.64	+0.48%	+1.86%	+6.12%
필수소비재	583.44	-0.06%	+1.35%	+2.72%
헬스케어	1,021.77	-2.03%	-3.69%	-4.70%
금융	453.93	+1.37%	+3.59%	+2.31%
IT	1,353.67	+0.49%	+1.73%	+4.98%
커뮤니케이션	165.49	+0.21%	+2.08%	+5.24%
유틸리티	291.21	-1.39%	-0.72%	+0.17%
부동산	220.41	-2.38%	-1.87%	+0.93%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## 한국 주식시장 전망

###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행보 주목

MSCI 한국 지수 ETF 는 0.42% MSCI 신흥 지수 ETF 는 0.75% 상승 했다.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(-404 계약)에도 불구하고 0.35pt 상승한 292.00pt 로 마감 했다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,136.7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/원 환율은 보합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오늘 미 증시에서는 퀄컴과 애플이 특허권 분쟁에 대해 합의안을 발표 했다. 합의안에서는 퀄컴과 애플은 전세계에서 두 회사간의 모든 소송을 중단한다고 발표 했다. 더불어 애플은 퀄컴에 로열티를 지급하고, 2 년 연장 옵션을 포함한 다년간의 칩셋 공급 계약을 포함에 4 월 1 일부터 6 년간 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 했다. 최근 애플이 삼성전자에 5G 칩 구매 의사를 타진 했으나 삼성전자는 공급량 부족을 이유로 거절 했었는데 이번 조치로 애플의 5G 스마트폰 출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어 한국 관련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의 행보가 주목된다. 한편, 미 증시 마감 후 IBM 이 클라우드 관련 매출이 1.5% 감소되었다는 점이 부각되며 시간외로 2% 가까이 하락 중인 점도 주목된다.

이와 함께 중국 경제지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. 시장에서는 전월보다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 주식시장이 경기가 개선되면 경기부양책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. 결국 경제지표 발표 이후 중국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 시장 방향성이 결정 될 수 있어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.

## 주요 경제지표 결과

### 유로존 경제지표 개선

3 월 미국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.1% 감소 했다. 이는 전월 발표치(mom +0.1%)는 물론 예상치(mom +0.3%)를 하회한 수치다. 제조업 생산은 예상치(mom +0.3%)를 하회한 0.0%로 발표되었다. 다만, 이는 최근 감소세가 멈췄다는 점에 긍정적인 모습이다. 공장 가동률은 78.8%로 전월(79.0%) 보다 소폭 낮아졌다.

4 월 미국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(62) 보다 개선된 63 으로 발표되었다. 최근 금리 하락으로 주택시장 심리가 개선된 모습이다.

4 월 독일 ZEW 경기기대지수는 전월(-3.6)이나 시장 예상치(0.5)를 상회한 3.1 로 발표되었다. 유로존의 ZEW 경기기대 지수 또한 전월(-2.5)를 상회한 4.5 로 발표돼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감이 완화되었다.

## 상품 및 FX 시장 동향

### 국제유가 상승

국제유가는 유로존 경제지표 개선 및 베네수엘라에 이어 리비아와 이란의 산유량이 크게 감소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며 상승 했다. 한편, 러시아가 6 월 이후 감산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언급이 발표된 이후 상승이 제한되어 왔으나,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최근 국제유가는 65 달러를 앞두고 공방을 보이고 있다.

달러화는 유로화에는 강세를 보였으나, 엔화 및 파운드화에는 약세를 보이는 등 혼조 양상을 보였다. 유로화는 양호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ECB 위원이 “중앙은행이 너무 경제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” 라며 우려를 표명하는 등 Dovishi 한 발언으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.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관련 메이 총리와 노동당과의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달러 대비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.

국채금리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자 상승 했다. 더불어 비록 미국 3 월 산업생산이 둔화 되었으나, 제조업생산 감소세가 멈췄다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. 특히 독일과 유로존 ZEW 경기기대 지수 개선이 금리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.

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.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및 유로존 경기 개선 기대감이 충돌하며 보합권 혼조 양상을 보였다.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.78%, 철근도 0.76% 하락 했다.

주요 상품	증가	D-1(%)	D-5(%)	주요 통화	증가	D-1(%)	D-5(%)
WTI	64.05	+1.03	+0.11	Dollar Index	97.081	+0.14	+0.08
브렌트유	71.72	+0.76	+1.57	EUR/USD	1.1283	-0.19	+0.18
금	1,277.20	-1.09	-2.38	USD/JPY	112.02	-0.02	+0.79
은	14.915	-0.40	-1.95	GBP/USD	1.3050	-0.38	-0.02
알루미늄	1,855.50	-0.51	-1.20	USD/CHF	1.0077	+0.36	+0.77
전기동	6,495.00	+0.23	+0.12	AUD/USD	0.7173	0.00	+0.69
아연	2,810.00	-3.10	-1.78	USD/CAD	1.3353	-0.10	+0.17
옥수수	367.75	-1.01	-0.20	USD/BRL	3.9041	+0.84	+1.33
밀	448.50	-3.18	-3.34	USD/CNH	6.7125	+0.07	-0.10
대두	901.75	-1.18	-1.10	USD/KRW	1135.70	+0.23	-0.56
커피	92.95	-1.01	-3.28	USD/KRW NDF1M	1136.76	+0.24	-0.29

10년물 금리	증가(%)	D-1(bp)	D-5(bp)	10년물 금리	증가(%)	D-1(bp)	D-5(bp)
미국	2.590	+3.61	+8.98	스페인	1.082	+0.20	+1.00
한국	1.932	+0.70	+6.50	포르투갈	1.192	0.00	-0.20
일본	-0.022	+0.30	+2.60	그리스	3.295	+2.00	-15.60
독일	0.066	+1.00	+7.60	이탈리아	2.592	+1.50	+17.00